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1년 3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종봉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전 화 051-510-1932

학사일정

2021. 3. 2.(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3. 15.(월) ~ 19.(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3. 19.(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3. 30.(화) ~ 4. 5.(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W)
4. 5.(월)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3선
4. 8.(목)	2020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4. 19.(월) ~ 24.(토)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4. 23.(금)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2선
5. 12.(수)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5. 15.(토)	개교기념일
5. 18.(화) ~ 21.(금)	2021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6. 14.(월) ~ 19.(토)	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6. 21.(월)	학기휴가 시작
6. 22.(화) ~ 7. 19.(월)	2021학년도 여름계절수업
7. 9.(금)	2020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8. 11.(수) ~ 13.(금)	2021학년도 2학기 1차 수강신청
8. 17.(화) ~ 17.(수)	2021학년도 2학기 2차 수강신청
8. 27.(금)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래에 단상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4 | 인문대 소식 / 동문 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05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동아시아지식학 총서 1, 2권 발간 – 『동아시아지식학의 세계를 열다』,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기획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1년 2월

인문대학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강화> 사업 3년째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수렴하여 동아시아지식학 총서 1, 2권을 발간한다. 1권은 『동아시아지식학의 세계를 열다』란 제목으로 부산대학교 내·외부 연구자 8명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의 현재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분야가 다양하고, 다루는 시기와 지역, 민족이 달라 자칫 이질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책의 글들은 서구적 근대성이 강요해온 발전과 진보의 단일하고 동질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그런 시각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와 사람의 활동을 보여준다. 2권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은 지난 3년간 개최한 학술강좌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며 10명의 연구자가 공저자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상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언어, 출학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동아시아지식학의 담론을 활성화하고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권이 동아시아지식학의 개론적 의미를 가진다면, 2권은 각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강화> 사업은 2년 더 지속될 것이며, 총서를 연차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기초·보호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학술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만남의 소중한 힘

중어중문학과
권도경



부산으로 이사했던 여름의 기억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한데, 부산대학교의 구성원이 된 지 벌써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소 어수선했던 첫 학기가 지난 후에는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학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다른 교수님들과의 식사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모임들이 사라졌으며, 활기 넘치고 북적거리던 학교도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해 본 온라인 수업은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표정 변화를 읽으며 교실에서 직접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감정 교류를 온전히 느끼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만남과 모임들이 있었다. 아름다운 담양, 목포, 여수 일대를 돌아보며, 평소에는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인문대 교수 연찬회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교수로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연찬회라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당시에는 학기 중에 먼 곳을 간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곳곳이 알록달록하게 물든 가을에 좋은 사람들과 망중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또 현재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졌지만 과거 몇 차례 있었던 인절미 모임도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다른 교수님들과 여러 고충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며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인문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지난 여름 밤, 인절미 모임에서 나눴던 오랜 담소는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정도로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작년부터 시작한 '현대서사 살롱'도 연구와 교수 생활에 있어 모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리다. 비록 학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대와 텍스트를 연구한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뭉친 이 모임은 각자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인접 연구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 많이 배우고 있다. 연구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막혔던 지점이 쉽게 해소될 때도 있는 것이다. 이 모임이 꾸준히 잘 이어져 나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지금까지도 그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전염병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왔고, 예상치 못한 격변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남과 소통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과 눈빛으로 나누는 감정적 교류는 생각보다 그 힘이 강해서, 이 만남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난다는 것'이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줬었는지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학교 이곳저곳 누비며 우정과 추억을 쌓아가길, 마스크 없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활발해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정년퇴직 교수



독어독문학과
박정환 교수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3월부터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문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언어연구교육원 겸임연구원, 효원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독어독문학과장 및 인문대학 학생과장, 대학본부 학생부처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어내용학회 부회장, 독일어문학회 편집이사 및 국제이사로서 한국어와 독일어 분야 학문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독어학이며, 특히 의미론과 화용론, 언어학사 연구를 비롯하여, 어휘의미 분석, 발화행위론 연구, 내용연구토대로서의 낱말발 개념 등 독어학의 핵심연구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임교수 부임



국어국문학과
김태우 조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2018년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9년 제10회 일석국어학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UCLA 한국학연구소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공부와 연구를 했다. 논문으로는 「명사 수식 구성의 통시적 변화」, 「어기 개념의 고찰」, 「활용 어간과 어미의 어휘 표상」 등이 있다.



철학과
박효엽 조교수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바라사스 힌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에 인도 푸네대학교에서 "The Logic of Avidya in Sankara's Advaita Vedanta"("상까라의 비이원론적 베단따에서 무지의 논리")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베단따 철학의 거장 상까라가 지은 인도철학의 최고 명저 "Brahma-sutra-bhasya"를 우리말로 옮긴 『브라흐마 수트라 주석(1)-(4)』이 있으며, 교양서로는 인도사상의 원천인 "Upanisad"를 해설한 『처음 읽는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바이블인 "Bhagavad-guta"를 해설한 『불온한 신화 읽기』 등이 있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과견

I 한태문	국어국문학	1년	2021. 3. 1. ~ 2022. 2. 28.
I 류민화	일어일문학	1년	2020. 9. 1. ~ 2021. 8. 31.
I 문성원	철학	1년	2021. 3. 1. ~ 2022. 2. 28.
I 임상택	고고학	1년	2021. 3. 1. ~ 2022. 2. 28.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교육부는 2006년부터 매년 학문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선정해 온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그 중 인문사회 분야(30건)에서 사학과 최원규 명예교수의 연구 성과가 선정되었다. 최원규 명예교수는 <한국 근대의 토지와 농민 총서> 시리즈의 하나인 저서 『한말 일체초기 국유지 조사와 토지조사사업』(2019, 혜안)을 통하여 갑오·광무개혁기부터 일제 초기까지 한국 근대의 토지제도, 특히 토지소유권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자료로 분석하였다. 또한 두 시기를 비교하며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의 한 특질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제63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



부산시는 10월 29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시민,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및 부산시민 문화현장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그 중 '부산광역시 문화상'은 부산의 문화 중흥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에게 시민 명의로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올해의 인문과학 부문에서 사학과 김동철 명예교수가 수상하였다. 김동철 명예교수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사업, 부산시사 편찬 등 부산의 역사 복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문대소식

2021학년도 1학기 학과장 명단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류숙영 교수	2020. 2. 1.
중어중문학과장	남덕현 교수	2019. 9. 1.
일어일문학과장	조강희 교수	2021. 3. 1.
영어영문학과장	김정윤 교수	2021. 1. 15.
불어불문학과장	전광호 교수	2021. 3. 1.
독어독문학과장	인성기 교수	2021. 2. 1.
노어노문학과장	양영란 교수	2020. 9. 1.
한문학과장	이준규 교수	2021. 3. 1.
언어정보학과장	김태호 교수	2021. 3. 1.
사학과장	이수훈 교수	2021. 2. 1.
철학과장	박정심 교수	2021. 3. 1.
고고학과장	이창희 교수	2020.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21. 3. 1.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전공주임	강은지 교수	2021. 3. 1.

2020학년도 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 이정민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 박소영]
한국어 동사 연결 구성 연구
- | 이연우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박기성]
영어와 한국어 소설 속에 나타난 욕정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비교 연구
- | 김연주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전지현]
영화 속 지적자폐 장애인의 언어 특징과 자막 번역 전략 고찰
-한국 영화와 영미권 영화를 중심으로-
- | 김은아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김용규]
1960년대 한국고전영화의 자막번역 규범 연구
- | 박근태 (고고학과) [지도교수 : 임상택]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구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및 강좌감상문 공모전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기반 확보를 위해 인문학 기반 다양한 주제로 학기 중 정기강좌 59회, 동계방학 중 집중강좌 25회, 학술강좌 18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ZOOM, PLATO를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다수 개최하였다. 또한, 강좌 참여도 및 만족도 향상,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함양 및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강좌감상문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을 선발하여 총상금 200만원을 수여하였다.

동아시아지식학 자율연구 장학지원 프로그램

인문대학 우수 학생 및 대학원생의 자율적이고 심화된 동아시아지식학 연구 및 학업활동 장려를 위해 1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자율연구 장학금 150만 원을 수여 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종강 후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고 2021년 1월 13일에 ZOOM 화상회의로 개최한 결과발표회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제3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

동아시아지식학 학술스터디 활성화 및 학문후속세대들의 자기 연구 심화를 위해 2021년 2월 3일 인문대학 시습관에서 <제3회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행사에서 9명의 차세대 신진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술적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시아지식학 영상콘텐츠 공모전

영상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공유를 통한 인문학 및 동아시아지식학 가치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영상물 자율 기획·제작을 지원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총 10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팀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동계방학 중 각자가 기획한 동아시아지식학 관련 주제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제출하였다. 영상물은 유튜브 및 인문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동문소식

한글 발전 유공 포상 수상

국어국문학과 김지현 박사(수료)와 정대식 조교가 훈민정음 반포 574돌을 맞아 10월 9일(한글날) 부산시로부터 한글 발전 유공 포상(부산시장 감사패)을 받았다. 김지현 박사와 정대식 조교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등 한글 발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과·연구소 소식

1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회 하반기 전국학술발표대회

한국문학회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12월 18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준비위원회와 일부 발표자만 실제 참석하고, 그 외에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의 1부는 학문후속세대의 발표와 자유주제로, 2부는 '한국문학과 래락'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2021년 1월 15일 열린 학술제에서 국어국문학과 학부 학술 동아리인 고전문학연구회, 배달말연구회, 귀성문학회가 1년 동안 연구하고 창작한 작품을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해 취업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에어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10학번 윤동익, 태광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10학번 정현수가 진로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방향에 관해 많은 조언을 들려주며 학생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번 학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된 이래 유일하게 ZOOM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1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특강

2학기 동안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지식학 특강으로는 10월 임대근교수(한국외대)의 '포스트한한령 시대, 한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12월에는 장동천교수(고려대)의 '문학 수용 매체로서의 시청각 문화와 중국문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 1월에는 장세정논설위원(중앙일보)의 '시진핑의 중국몽과 바람직한 한중관계', 2월에는 김영미교수(세종대)의 '타이완의 문화예술과 정체성', SAM 분야 콜로퀴엄인 홍석표교수(이화여대)의 '시인 이육사의 중국 근현대 문학 번역'에 이르기까지 문학, 문화, 정치, 시사,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특강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전공분야 지식을 넓히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10월 28일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22일 모두 세 차례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을 개최하였다. 10월 28일에는 천혜영(08, 부산외국인학교), 12월 11일에는 홍창표(86, KOTRA), 12월 22일에는 전선임(86, 부산광역시청) 졸업생을 초청하였다. 각기 다른 분야의 졸업생 취업 특강을 통해 취업준비와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 재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특강은 2020학년도 단과대학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1 영어영문학과

드라마학회 연극 'SCRIPTED' 촬영 및 40주년 기념영상 제작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학회는 지난 8월 14일 수영구 도담스튜디오에서 연극 'SCRIPTED'를 촬영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드라마학회 40주년을 맞아 대연동 하늘바람소극장에서 기념 영상을 촬영했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학회는 4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인문대학 유일의 학부연극동아리로서 기획, 연출, 무대장치 등 공연 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동아시아지식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10월 30일 최지연 교수의 '생애 첫해, 영아의 모국어 말소리 습득의 신비' 강좌가 ZOOM 실시간 화상강좌로 진행되었으며, 11월 2일에 신진원 강사의 '인지적 차이를 기반으로 본 영어와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었다. 11월 10일에 안소미 교수의 '최신 청소년 영화를 통해 읽는 여성 성장의 문법' 강좌가, 11월 23일에는 임관혁 박사의 '언어패러다임의 변화: 접촉의 언어, 링구아 프랑카' 강좌가 개최되었다. 11월 30일 신진원 강사의 '이미지를 통해 본 한·중·일 정체성 비교' 강좌와 12월 18일 최성희 강사의 '동물과 문학의 조우' 강좌가 실시간 화상회의로 열렸다.

1 독어독문학과

독일문학 UCC 공모전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학년도 독일문학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독어독문학 전공생을 비롯하여 독일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독일문학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학과와 학생회가 함께 기획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5개 팀 13명이 참가하였다. 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수상팀에게는 상장 및 상품을 각각 전달하였다.

작가 및 작품명		UCC 제목
대상 1팀	야콥 하인, <엔젠씨, 하차하다>	하은 씨 로그아웃하다
금상 2팀	하인리히 빌, <통계에 함께 셀 수 없는 여인>	Werden wir gezählt?
은상 2팀	하인리히 빌, <카타리나 불륨의 잃어버린 명예>	미래의 카타리나들을 위하여
	하인리히 빌, <카타리나 불륨의 잃어버린 명예>	Die Wiederherstellung
	프란츠 카프카,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인간실존주의에 대하여 (Auf-gegebensein)

I 노어노문학과

마트로슈카 만들기

11월 13일 러시아센터에서는 노어노문학과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두 1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마트로슈카 만들기 행사를 하였다. 학생들은 마트로슈카의 유래와 마트로슈카와 관련된 러시아 문화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마트로슈카를 꾸며보는 활동을 하였다.



I 한문학과

제22회 온라인 효원성년제

‘효원성년제’는 통상 성년의 날(5월 18일,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있는 5월에 치러왔지만 제22회 ‘효원성년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월 까지 개최가 미뤄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시행되고 있었고 해를 넘기지 않고 행사를 치르기로 하고, 11월 3일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에서 성년제를 개최하였다. 성년제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성년제의 주관자인 주인(主人)과 빈(賓), 그리고 대표 성년자들이 간소화한 전통성년의식을 진행하고, 온라인(ZOOM)에 마련된 성년제 공간에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한 부산대·부산교대·동서대·부경대·경성대·계명대 등에 재학 중인 성년자 80명과 일반인 등이 참관해 새로운 세대로서 인정받는 한편 성년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였다.



전공관련 취업특강

12월 4일 한문학과 전공관련 취업특강이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었다. 번역가, 대학원, 교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4개 분야의 졸업생들의 4인 4색 특강에 재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I 사학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 청대 천주교와 중국경제

11월 27일 이준갑(인하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을 개최하였다. 강좌는 중국 청대에 천주교에서의 선교가 오로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가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면서 진행되었다. 이준갑 교수는 선교라는 성스러운 일에 세속적 욕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돈’이 어떤 식으로 선교에 쓰였는지 소개하고, 청대 천주교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강좌는 대학원생들이 한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저명학자 초청 특강 - 문화의 정치사, 정치의 문화사

12월 29일 이기훈(연세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온라인 특강을 개최하였다. 강좌는 한국사에 있어서 급속한 변혁을 겪은 시기에 ‘청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주로 살펴보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기훈 교수는 당시에 발간된 잡지나 신문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적인 사안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참여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게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제3회 한중 국제인문학술 심포지움

12월 26일에 인문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정주대학 역사학원과 사학과가 세 번째 국제인문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中国 古代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예방 치료’, ‘明代 救荒인식과 『野菜譜』 편찬: 서민 지식인의 고뇌’, ‘宋徽宗과 龍德宮의 生死인연’의 세 가지 주제로 기조 강연이, 이어서 ‘悬泉汉简에 나타난 使節 往來에서의 西域 여성’, ‘金代 漢族 官僚 起用の 特徵과 變化- 宰執 集團의 分析을 中心으로-’, ‘唐代 洛陽벽들의 手工業 생산 및 都市건설 연구’, ‘고려 開京의 朝會儀禮와 朝堂 공간-朝參의례를 중심으로-’의 네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라는 주제로 중국의 왕실, 도성, 식생활 문제와 한국 고려의 왕실 문제 등이 다채롭게 제시되어, 양국의 연구자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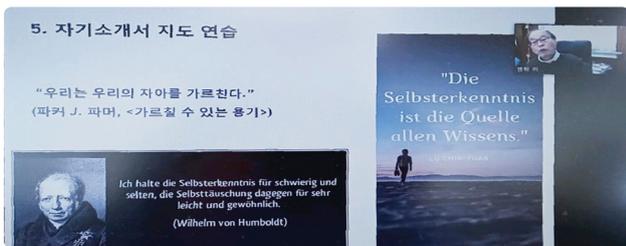
전공수업 레포트 공모전 개최

사학과 전공 수업의 우수한 레포트 작성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사학과 학생들의 전공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타 교양 수업의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학과 전공수업 우수 레포트 공모전)을 12월에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우수한 레포트들이 제출되었다. 학과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박사과정생들이 1차로 심사를 한 후, 교수진이 최종으로 심사하여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5명)를 선발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전공 레포트의 표본을 만들고 소개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1 철학과

자기소개서 첨삭특강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최

인문대학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자기소개서 심화과정인 “철학전공을 경쟁력을 삼는” 자기소개서 첨삭 특강, 컨설팅 사업을 위해 논리적 글쓰기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인 가톨릭대학교 하병학 교수를 초청했다. 2020년 12월 28일, 30일, 2021년 1월 3일 세 차례 동안 진행된 온라인 강의에 학부생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지도에 관심 있는 철학과 대학원생, 강사도 참여했다. 하병학 교수는 자기소개서 글쓰기의 시작으로 자기 이해와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학 전공의 자기 통찰력의 강점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표현 방법을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이뤄진 강의였다.



자기소개서 작성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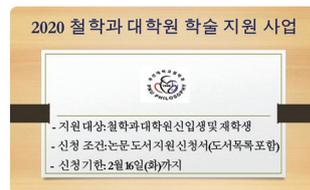
자기소개서 특강에 이어서 진행된 자기소개서 작성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장학/대기업/공공기관 분야별 총 23명이 지원하였다. 외부, 내부 심사, 최종 심사를 거쳐서 1월 27일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수상자로는 최우수상 김민지(20학번), 지원분야별 1등 조수연(19학번), 김지원(15학번), 황현정(19학번) 포함 총 10명이며, 수상 학생에게는 상장과 시상품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참가 상품이 전달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를 포함한 “철학전공을 경쟁력으로 삼는” 자기소개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학과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전문가 첨삭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부 오리엔테이션

학부 오리엔테이션을 2월 9일 두 분반으로 나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개최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도 이어질 비대면 대학 생활로 인해 학사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신입생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강 신청 방법 및 학사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가 끝난 후, 철학과 입학축하하는 의미에서 대학생활에서 기초적인 포트폴리오 정리를 위한 축하 기념품과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축하 손글씨를 적은 다과도 전달되었다.



대학원 학술 지원 사업



2020학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대학 내 대학원 연구실 폐쇄 등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이 제한되었음에도 학업에 성실하게 임한 철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격려하고, 신입생에게는 축하와 함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대학원 논문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논문 도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1 고고학과

동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동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번 동계방학에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7명, (재)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의 창원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현장에서 1명, (재)한국문화유산원의 부산 노포동 고분군 발굴현장에서 3명이 실습을 하였다.



I 점필재연구소

2020년 밀양 전통 인문고전 축제

일시	장소	행사명
2020.10.16. ~2020.11.14.	밀양관아 외	<점필재인문아카데미> 밀양의 인문전통 <점필재인문아카데미> 밀양의 인문정신



한국한문학회 공동 기획학술회의

일시	장소	행사명
2020.11.07.	화상(비대면)	한국한문학회 공동 기획학술회의 야담집 <溪西雜錄>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

역서 출간



완역 태극학보 1~5

권정원, 손성준, 신재식, 신지연, 유석환, 이남면, 이영준, 이태희, 임상석, 최진호 역 | 보고서 | 2020



고산집 1~3, 교감표점 고산집, 교감표점 소호당집

김홍영, 남춘우, 정석태 역 | 점필재 | 2020

I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92호 발간 | 2020년 10월



I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낙동강 유역의 사람과 문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행사명
2020.10.27(화) 15:00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05호 세미나실	설병수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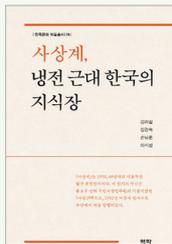


로컬리티 인문학 24호 발간 | 2020년 10월



한국민족문화 77집 발간 | 20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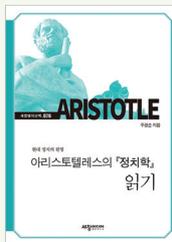
신간소개



『사상계, 냉전 근대 한국의 지식장』 (민족문화 학술총서 74집)

김려실, 손남훈 외 2명 | 역락 | 2020

『사상계』는 1950, 60년대 지식인들의 교과서라 불렸던 종합잡지이다. 1952년 여름 임시수도 부산에서 『사상』이라는 제호로 시작하여 1970년 『오적』 사건으로 강제 정간될 때까지 통권 제205호가 발행되었다. 이 책의 필자들은 냉전시대 지식인들의 지적·사상적 궤적을 따라가며 『사상계』 담론의 추이를 살펴본다. 암울한 현실과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대항 담론 공간을 만들어갔던 지식인들의 노력과 한국 최초의 민주혁명인 4월혁명 이후 공론장으로서 『사상계』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읽기

주광순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0

현대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투표만 하며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여기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더욱이 현대 교육은 시민을 모두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든다.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다만 경제적 인간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 하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암담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모범답안을 훑쳐보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푸코의 철학 개념처럼—‘현시대와는 다르게 사유하기’ 위한 스케일과 깊이를 배우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열망에 공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